

〈開化期의 小說〉 研究의 몇 假說

金 重 河*

- | | |
|-------------------------------|-----------------------|
| I. 開化期 設定 問題 | 1. 인물에 대한 人間觀의 變
화 |
| II. 開化期 小說과 〈開化期의
小說〉 | 2. 世界 認識과 양식의 선택 |
| III. 〈開化期의 小說〉 樣式分類 | 3. 問題的 個人 |
| IV. 〈開化期의 小說〉에 대한 몇
가지 假說 | V. 남은 말 |

I. 開化期 設定 問題

開化期란 말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용어다. 그것이 역사에 사용되는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문학사에 사용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첫째, 그것은 近代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가끔씩 近代化와 開化라는 말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이를 구별해 쓰려고 하고 있으며 또 엄격한 한계를 그어 놓고 있기도 하다.¹⁾ 둘째는, 그러면 開化期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어느 때까지로 보느냐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 해답도 명확하지 않은 않다. 더구나 그 시작에 관한 논의는 있어 온 것이지만 그 下限線 즉 그 시기의 마무리를 어디로 보느냐에 때

* 釜山대 人文大 副教授

1) 國史學에서 近代의 基點은 여러 가지로 잡고 있다. 1860年代(李宜根), 1876年(龔權學會), 심지어는 1945年(高弼翹)으로 보기도 하며, 높이는 18세기 後期(劉元東, 洪一植)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에 비해 開化의 基點은 1860年代(洪一植), 1880年代(李光麟)로 잡거나 1894年으로 보고자 하는 다수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近代와 開化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잡혀 있어 혼동되는 바가 있고 또 그 개념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文學史에서 近代는 1910年代로 보자는 것이 지배적이고, 開化는 1894年으로 보는 학자가 특히 많으나 이에 대한 定說은 없다.

한 것은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²⁾

이러한 문제는 결국 開化를 오늘의 視點에서, 새로운 기미의 시작만을 염두에 두고 거슬러 올라가는 일에만 성급히 서둘렀지, 그것의 소멸 내지는 그 특징의 감퇴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또 문학의 흐름을 하나의 줄기로 잡아 위에서 아래로 파악해 보려는 태도로 임했을 때는 전통적인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변화의 기미가 늦게 잡히거나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開化期의 設定에 대한 異見들은 어느 한 쪽에서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분분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開化期를 ‘1860年代에서 1910年代까지’로 좀 광범위하게 잡아 보고자 한다. 1860년이란 東學의 시작시기와 일치하고 있어서 뜻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近代의 싹이 트는 시기이기도 해서 꼭 어느 한쪽의 의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下限線을 1910年代로 잡는 이유는, 적어도 문학의 흐름으로 보아 새로운 운동과 변화는 1910年代에 와서야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³⁾

문학사에서 開化期란 현대문학을 보는 안목에서 소급하는 태도만으로도,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단절에서만도 찾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문학사의 連續性을 확보하려는 通時的 안목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단절된 문학사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시기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 조금은 아래로 폭을 넓혀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開化期小說과 〈開化期의 小說〉

開化期小說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이 용어는 開化期의 신문이나 會報, 學報에 실린 개화적 성

2) 開化期文學의 시작만 언급해 버리고 그 下限線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近代文學의 시작이 곧 開化期文學의 下限線이 되거나 新小說의 등장인 그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3) 필자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분도 있다. 趙東一教授는 開化期文學의 概念과 特性(국어국문학 제68·69호, 1975)에서 1919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격을 지닌 소설류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開化期 新聞 小說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막연히 開化期 小說로 더 많이 사용되어 온 것 같다. 이 용어는 결국 開化期라는 시기에 나타난 신문이나 會報, 學報에 실린 개화적 성격을 띤 소설을 뜻하게 되었으므로 開化期+小說이란 합성어가 되는 셈이다.⁴⁾

그렇다면 이 開化期에는 開化期 小說만이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開化期 小說이 時代的 의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소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開化期의 小說〉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開化期 小說과 구별해 쓰고자 한다.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開化期 小說에다 다른 의미를 부과하므로써 생기는 혼돈을 막고, 開化期라는 시기를 더욱 분명히 밝혀 주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소설이란 뜻을 담게 하기 위해서 〈開化期의 小說〉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리라 믿는다.

〈開化期의 小說〉은 물론 開化期 小說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新 小說이란 용어로 쓰여진 소설도 포함될 것이며, 古小說 중 일부도 여기에 넣어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古小說은 이미 있어 온, 그래서 그 구조적 특징이나 문학사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開化期의 小說〉에 넣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먼저 〈開化期의 小說〉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시기적 광범위성에서 비롯된다. 앞서도 밝혔듯이 1860年代에서 開化期가 시작된다고 필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古小說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古小說이라 이름붙여 준 소설들이 언제 쓰여진 것들인가,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古小說이 정말 그렇게

4) 여기서 개화적 성격이란 그 개념이 모호하다. 대체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욕구와 민족자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대과가 없다. 그런데 開化期 小說이란 용어는 李在鎡教授가 韓國開化期 小說研究(1972, 一瀾閣)를 출판하면서 일반화된 듯하다. 여기서 개화기 신문에 실린 소설들에 관심을 보이고 신소설에 앞선 소설들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연구의 폭을 넓힌 셈이다.

오래 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의심하는 데서 문제를 풀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古小説은 筆寫本에 비해 板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筆寫本의 경우 그것이 筆寫된 時期나 창작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보다 막연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다. 이 막연한 추정은 시대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板本에 있어서 그것은 1910年代에까지 印刷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미 있다.⁵⁾ 이렇게 놓고 보면 板本이 開化期에 인쇄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실사 筆寫本이 板本에 앞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板本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古小説이 開化期에 많이 읽히고 있었다는 증거로서는 충분하다. 즉 板本小説이 널리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당대를 지배하는 소설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板本小説의 인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當代에 새로 쓰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에 넣고 생각하면 古小説이라고 해서 전부가 開化期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만 몰아부칠 수는 없다. 실사 그것이 개화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개화기에 인쇄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開化期의 小説> 범주 속에서 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⁶⁾

다음으로는 개화기 신문이나 會誌에 실린 소설들이 전부 開化期小説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화사상을 고취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부

5) 이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柳鐸一教授의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1981, 學文社)다. 여기서 柳教授는 全州서 간행된 坊刻本小説들의 異本들을 모아 그 계보를 확정짓고 그것들의 발간 연대를 정확히 고증했다. 이에 의하면 17種의 소설들이 가장 왕성하게 印出된 시기는 1900~1910年 사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完板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京板, 安城板 등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6) 이 점은 몇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인쇄되는 시기와 창작년대를 일치시켜 그 연대에 의해 古小説의 지위를 확보시키는 방법과 그것이 널리 읽히는 시기를 잡아 지위를 확정짓는 방법 사이의 선택 문제다. 물론 창작년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독자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읽히는 시기가 더 중요한 수도 있다. 더구나 文學史的 흐름과 양식의 변이를 문제시할 때는 독자사회학적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用語上的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따로 <開化期의 小説>이란 용어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양식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다. 이는 後述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응하는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古小說로 보아야 할 작품이 적지 않게 실려 있었다.” 燕岩의 虎叱, 許生傳이 번역되어 있었고, 분명 古小說이라고 보아야 작품이 分載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개화기 신문이나 會誌의 성격으로 보아 독자들의 흥미를 돋구는 것이거나, 재미로 읽을거리 정도의 가벼운 비중이었다 해도 當代의 취향을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⁸⁾

이러한 사실들은 개화기가 開化期小說만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고 古小說도 共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좋은 두 가지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개화의식이나 당대의 요구만을 앞세워 古小說은 〈開化期의 小說〉에서 빼 버린다는 것은 한 시대 문학을 一面에서만 고찰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新小說을 포함시키는 문제.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미 先學들도 新小說을 開化期小說의 일부로 보거나, 함께 묶어 생각하고 있으며 그 성격으로 보아 별개의 것으로 독립시키느니보다 한 시기의 문학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다.⁹⁾ 다만 문제가 된다면 開化期小說을 新小說의 바로 앞 시기에 있었던, 新小說을 낳게 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느냐, 開化期小說의 발전 양상을 新小說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설의 발전과정 속에서 두 양식을 분리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同時代의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開化期小說의 발표년대와 新小說의 발표년대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다.¹⁰⁾

7) 그 예로 〈靑樓義女傳〉 〈灌頂醍醐錄〉 〈적선여경록〉 등을 들 수 있다.

8) 당시의 學報나 會誌는 그 목적하는 바가 대중적 계몽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속에 위인전기나 野史類를 실거나 그냥 〈小說〉이라 하여 野談類를 실었던 것은 구색을 갖춘다는 의미나 읽을거리라는 가벼운 편집자의 태도로 보인다.

9) 李在統; 韓國開化期小說研究, 1972, 一潮閣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1975, 一志社

등의 저술에서 開化期小說과 新小說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同時代의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尹明求도 開化期 敘事文學 장에서 이들을 共存한 것으로 본다.

10) 李人植의 〈血의 淚〉가 1906년에 발표된 것인데 開化期小說 〈一捻紅〉이 같은 1906년에 大韓日報에 〈車夫誤解〉는 大韓每日申報에 실렸다. 이는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會誌나 學報가 1905년 이후에 발간했다는 점을 생각 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것이다.

세째, <開化期の小説>을 한 時代의 소설로 본다면 당대의 다양한 소설 양식의 相異性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한 시대의 문학현상을 공시적 입장에서 연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개화기가 짧지 않는 60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인 고찰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通時的 전개를 무시하지 않고, 그 영향관계와 변화의 기미를 놓치지 않는다면 공시적 고찰에서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開化期の小説>이란 용어의 설정이 무리가 없음을 보인 셈이다. 그러므로 <開化期の小説>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로 쓰도 무방할 것이다.

Ⅲ. <開化期の小説> 樣式分類

<開化期の小説>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에는 그 양식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다고 古小説, 開化期小説, 新小説 등으로 三分하는 것은 <開化期の小説>을 설정한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또 이것들을 同時代의 共存 양식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에도 알맞지 않다. 때문에 筆者는 이들의 기존양식 분류방법을 제쳐 두고 새로운 양식 분류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즉 개별 작품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들에 의해 분류해 보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筆者는 <開化期の小説>을 四分해서, 傳的, 討論體, 回章體, 短形小説 등으로 이름붙였다.¹¹⁾ 이 분류 방법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양식의 구별이란 결국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그것이 드러내는 구조적 특이성에 의한 변별 요소를 최대한으로 살려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筆者는 開化期小説에 관해 몇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 특히 그 양식적 분류는 開化期小説研究(I), 1978,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論文集中에서 시도한 것이며 短形小説에 관한 것은 開化期短形小説研究, 1981, 釜山大學校 人文論叢에서 시도한 바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古小説·新小説·開化期小説 등이 하나의 양식 속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기존 분류에 의해 연구된 특징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 원칙하여 수렴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즉 古小説과 新小説이 전연 동일하지 않거나 상당히 달라 보이는 요소들을 나타내었을 때 이를 통합시키는 것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相異性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共存할 수 있었던 이유와 同質性을 먼저 중시하고, 그 相異性은 발전적 과정으로 처리하려 한다. 즉 共時的의 고찰을 선행하고, 다음 이의 보완을 위해 通時的의 변화를 논리화함으로써 양식의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傳的小説의 양식은¹²⁾

1. 등장인물의 출생 또는 전제 (도입부)
2. 사건의 발생
3. 사건의 전개
4. 사건의 종말
5. 인물의 종말 (종결부)

등 5 단계로 그 전개를 나누어 생각하되 이 5 단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선다. 즉 1과 5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생략이 있어도 傳的小説 양식에 소속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른 異種들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古小説·新小説·開化期小説을 통합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결국 傳的小説이란 한 인물의 傳記的 記述을 목적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 여하에 따라 단계의 순서가 바뀌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앞서 든 5 단계의 전개 방식에 모두 수렴된다. 때로 2, 3, 4 단계가 중복적 구조를 가졌거나 여러번 되풀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5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討論體小説 양식은 다음과 같다.

12) 필자의 開化期小説研究(1), 1978 참조.

1. 등장인물의 만남
2. 인물들의 문제의 討論
3. 등장인물의 헤어짐

이 양식은 傳的小說에 비하면 다소 영성하기는 하지만 인물의 설정이나, 문제에 대한 討論, 헤어짐이 叙事構造로 뼈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출현을 공개토론회의 억제에서 찾고 있는 연구가도 있지만¹³⁾ 필자의 소견으로는 소설의 한 양식으로 이미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¹⁴⁾

回章體小說은 근대소설에서 볼 수 있는 惡漢小說(picaresque)의 변형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그 독립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작은 소설들을 묶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하는 양식이다. 이는 그 예가 많지는 않지만 복잡한 구조의 엄밀을 단순화시켜 주는 기능과 약간은 異質의인 이야기를 전체 목적에 기여하도록 엮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短形小說은 그 길이가 짧다는 것이 첫째 특징이며, 說話의 성격에 가까울 정도의 단순성이 둘째 특징이다. 그리고 말미에 따로 첨가된 論評이 額子를 형성시키면서 說話의 성격을 當代的 의미로 끌어 올려 놓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얼핏보아 雜報에 가까와 小說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도 있지만, 여타 다른 <開化期의 小說>이 갖고 있는 양식적 불완전성을 인정한다면 이도 소설로 대접받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¹⁵⁾

이상 필자가 설정한 <開化期의 小說> 양식에 대한 개괄은 일단 문제의 제시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에 그친다.

IV. <開化期의 小說>에 대한 몇 가지 假說

<開化期의 小說>을 共時的으로 연구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 보이고,

13) 金允植; 韓國近代文學樣式攷, 1980, 亞細亞文化社 중 開化期의 文學樣式이란 글에서 연설의 글자가 토론의 내재화를 가져 왔고 그것이 곧 開化期의 한 양식으로 굳어진 연설의 산문화라고 했다. 이 연설의 산문화가 필자의 討論體小說에 해당된다.

14) 필자의 開化期小說研究(I) 참조.

15) 필자의 開化期短形小說研究 참조.

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즉 하나의 양식 속에서 발견되는 異種에 대한 처리다. 이것들을 다만 異種이라는 명목만으로 몰아버리기에는 적연찮은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通時的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傳的小說에 있어서 양식의 異種이나 短形小説의 說話的 성격의 출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通時的 觀點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만으로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반성 역시 뒤따라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몇 개의 假說을 세워 간단한 언급으로 끝내고 이에 대한 考究는 뒤로 미룬다.

1. 인물에 대한 人間觀의 변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내지는 인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소설양식에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겠다.

人間의 人間 스스로에 대한 자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世界에 대한 인식보다는 분명 늦은, 世界의 인식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진다. 때문에 神話時代의 인간은 世界 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世界의 질서와 함께 아무런 갈등없이 생존할 수 있었다. 神話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므로 인간적 고뇌나 갈등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眞實의 敘事的 構造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人間 자신에 대한 개별적 자각은 이러한 神話의 구조를 그대로 지탱할 수 없게 만들고, 人間의 독립적 자아의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說話構造를 낳게 만든 것이다. 世界의 질서 속에 있던 人間의 행위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을 때는 세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인간의 資質은 先天의이거나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決定論의 人間觀이었다고 할 수 있다.

古小説은 決定論의 人間觀 위에 성립되는 소설이다. 때문에 능력이나 身分, 地位 따위는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先天의인 것으로 접지된 것이며 후천적으로는 그 변동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古小説에서의 인물은 먼저 決定論에 입각한 능력과 身分의 확정 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전제로서 인물의 신분이나 능력을 결정해 주는 출생담 또는 導入部가 필요했던 것이다. 소위 영웅계소설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壬丙兩亂 이후 사회구조의 변동, 신분제층의 혼란, 신분의 이동 등의 추세와 함께 決定論的 人間觀이 흔들리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더불어 意志的 人間觀이 생겨날 수 있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은 先天的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그것의 변화는 노력에 의해 달성하게도 된다는 생각이 軍談小説類를 낳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⁶⁾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身分上昇이나 地位確保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世界秩序 속에서 달성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平民이 양반이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양반이나 평민의 계층이 갖는 구분은 철폐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世界秩序와 人間·自我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며 그 갈등의 해소가 욕구의 충족으로 실현되어진다고 해도 완고한 世界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게 마련이다.

古小説의 이러한 人間觀의 근거가 다시 확인되는 것은 終結部이다. 앞서 있는 중간부분의 사건이나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끝맺는 일은 불완전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비약적인 인물의 죽음인 종말을 가져다 놓는다. 결국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한 인물의 一生을 완결짓지 않고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입부와 비슷한 종결부가 영웅계 소설의 그것처럼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입부와 종결부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 전고성으로 보면 종결부가 미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종결부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그 기능 또한 약해지면서 탈락해 버리거

16) 徐大錫; 軍談小説의 構成과 作者意識, 啓明論叢 7, 1970과 軍談小説의 出現動因 反省, 韓國古典小説, 啓明大學校出版部, 1974 등을 참고 할 것. 즉 몰락양반들의 지위회복의식이 반영된 양반소설이 군담소설이라 보고 있다.

나, 전연 그 흔적만을 남기게 된다. 다음으로 도입부의 도식성이 약해지고, 놓이는 자리가 일정하지 않아, 소설 중간에 언급되는 형식을 취하거나 빠져 버리게 된다.

開化期는 人間觀이 世界 즉 國家 속의 人間이라는 차원과 個性의 자각이라는 두 기둥 위에 놓이는 시기이며 또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때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는 하나의 소설양식이 그 전형을 고수할 수 없도록 충격을 가하고 變種 · 異種을 속출시켰다.

우선 위기 앞에 선 國家의 存立을 염두에 두게 하면서도 자각된 個性의 회복도 이루어야 하며, 이의 문학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자니 양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와중에 놓여진 것이 傳的小說 양식이었고, 그 구체적 모습들이 異種으로 나타났다. 특히 開化期 小說과 新小說에서 그러한 현상들은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도입부가 생략되어 있거나 종결부가 없어진 것, 또는 이 둘이 다 흔적만 남기고 외관상 없어져 버리는 것 등 異種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변모는 다양해지는데 이는 個性에 대한 자각의 한 반영이라 생각되며 이는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적 요청인 國家觀의 강요가 전적으로 배제될 수 없었고, 世界의 질서가 완고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傳的 양식의 기본구조를 완전히 와해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상충되는 두 기둥이 兩立되는 개화기의 특수한 상황이 傳的小說 양식의 발전적 해체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異種을 파생시킨 셈이다.

人間에 대한 자각이 아직도 世界 속에 놓여 있으며 決定論的 人間觀에서 완전히 人間 스스로에게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의식이 더 첨가되었기 때문에 前代의 傳的小說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異種 · 變種을 낳기만 했다.

이것이 다음 시대인 근대문학으로 옮겨가면 世界秩序의 완고성이 무너지고 人間の 자각만 두드러지게 강조되면서 前代의 傳的小說 양식은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開化期의 小說〉의 양식을 결정짓는 한 요소

로 人間觀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 世界認識과 양식의 선택

神話의 世界에서는 人間の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다 크고 완벽한 질서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인간이 던져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절대적 世界의 질서가 있고 그 속의 인간은 이 질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구제불능의 靛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므로 절대 순응 또는 복종만이 강요된다. 여기에 인간적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神話는 완전불멸의 진실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叙事構造요 世界秩序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러한 世界秩序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人間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고 해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天上의인 世界가 인위적 國家概念으로 대치되고 倫理的 가치 규범의 형태로 바뀌어졌을 뿐 그대로 존속된다.

人間觀의 급진적 성숙에 의해 절대적 世界秩序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면서 天上과 地上이라는 二元的 世界觀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地上秩序에 익숙해지면서 古小説은 나타난다.¹⁷⁾ 그러나 완전히 世界의 秩序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의식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의 처리에 超人(神)의 힘을 원용하고,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또 事必歸正이나 권선징악의 주제는 個性에 대한 귀결이 아니라 倫理的 판단 우위의 결말을 유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世界認識은 人間 중심의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맞았으나 이의 실현이 역사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實學의 대두는 바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말기 현상은 이러한 實學의 발전을 막아 버린 셈이 된다.¹⁸⁾ 집권자의 권력유지를 위해 實學의 白眼視가 그 첫째요 다음

17) 古小説의 특징으로 天上界와 地上界의 설정과 그 왕래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는 대립적 구조 원리에 의한 것으로 차츰 천상계는 소멸된다.

18) 實學의 대두는 지금까지 있어 온 정치윤리를 治者의 것에서 백성의 것으로 돌려 놓았다

은 國權의 흔들림이 그 둘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의 방해보다는 둘째의 충격이다.

實學이 人間 중심의, 個性 중심의 世界認識을 열어 보였고 이에 따른 문학적 수용이 가능해진 때, 이보다 더 화급한 國權의 흔들림은 國家에 대한 충성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버렸고, 國家 우선의 世界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個性과 自我 중심이 아닌 世界中心의 사고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문학을 硬直시키는 요소다. 문학이 그 스스로의 독자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시기에 문학의 종속성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것은 소설 양식의 형식적 측면보다 내용이나 주제의 강조를 유발시키며 문학성보다는 그 敎導的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비극적이었다.

世界認識의 이러한 변화는 양식 자체 내부의 구조 변화에도 작용하는 것이었겠지만 또 달리는 양식의 선택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구조적 발전의 추구를 일단 정지시키고 당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구조 고정을 요구하였으니, 주제나 내용의 적극적 표백에 도움이 되는, 세계 질서의 용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開化期小説·新小説 등에 쉽게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說話 양식의 선택이라는 퇴행적 현상이다.

說話 양식은 世界秩序의 우위를 확인하고 거기에 종속되는 인간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당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소설이 곧 〈開化期의 小説〉 중에서 短形小説이다. 이것은 說話의 보편적 진술방법이 그대로 원용되거나 더 많이는 說話 그 자체를 바로 옮겨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 선택은 世界認識의 결과다. 그러나 說話 양식을 원용하거나,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소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생긴다.

는 메 더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절대권력의 해체를 요구하고 그것의 강압적 지배를 해방시키며 백성 개개인의 人權에 대한 자각이란 점에서 人間觀의 전환이라 해도 좋다.

이에 대해 短形小説은 작은 배려와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短形小説의 양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前文과 添言의 보탬이 바로 그것이다. 이 前文과 添言은 說話의 앞과 뒤에 붙어 있어서 說話를 중심 이야기로 만들어 주고 있어서 그 기능은 일종의 外部額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前文과 添言이 說話를 원용하면서도 그것이 短形小説이 되게 하는 결정적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일단 허구성의 획득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또 當代的인 의미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는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높다.¹⁹⁾

短形小説은 開化期가 낳은 독특한 소설 양식이다. 그것의 형식적 불완전이나 엉성함은 오히려 시대적 산물이라 보아야 하며, 이러한 前代的 양식의 부활 또한 開化期 시대상황이 요구하고 있었던 世界認識의 경직성에서 온 것이라 생각된다.

3. 問題的 個人

소설 속의 인물이 갖는 비중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긍정할 만하다. 특히 <開化期의 小說>을 여타 소설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근대 소설이 性格小説이어서 人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開化期의 小說>에서 人物은 중요하다. 그것은 그 性格이 뚜렷하다거나 個性的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들이 대결하고 있는 世界가 硬直되어 있다는 점에 서다.

古小説 속의 인물이 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면적 성격으로 지적되지만 <開化期의 小說>에서 인물 역시 問題的인물이란 점에서 평면적이다. 그러나 이 인물은 한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當代的 삶 속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典型的인물이다. 이것은 <開化期의 小說>이 격변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점과 또 그것의 교도적 기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좋겠다.

19) 필자의 開化期短形小説研究 참조.

〈開化期의 소설〉중에 역사·전기물이 많고 그것은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論한 先學도 있다.²⁰⁾ 이 말은 옳다. 이러한 소설 속의 인물은 問題的人物이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소설 속의 시대적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실은 그러하지 않고 時代의 유사성으로 해서 當代의 문제로 Allegory 되어 있거나, 그의 정신이 開化期 當代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자료는 板本小說 가운데 개화기에 발간된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軍談小說系였다는 것이다.²¹⁾ 어찌서 다른 소설들도 많은데 하필 군담소설류가 많이 발간되었고 읽혔느냐 하는 점을, 단순한 현상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當代의 현실이 이러한 영웅적 인물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기백과 정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討論體小說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의관상 어수룩해 보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²²⁾

이러한 점으로 보면 〈開化期의 小說〉 인물들은 대개가 問題的 個人으로 當代의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典型的 인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서 論述한 世界認識 차원과 無緣하지 않다. 世界認識이 인물 설정에 관여하면서 그 성격을 결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인물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 전부 同質的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世界認識의 質의 차원이 변수로 작용할 수

20) 李在鎭; 韓末 日帝下의 禁書(1) 애국부인전 · 乙支文德 · 瑞士建國誌, 1975, 한국일보사. 여기서 역사·전기물의 시대적 요청과 그 의의를 논하고 있다.

21) 柳鐸一;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學文社, 1981.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17편이 군담소설과 판소리계 소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0 종이 군담소설인 것으로 보아 영웅기예설리가 작용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22) 특히 討論體小說에서의 등장인물은 풍자적 수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모자라 보이는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은 정확하다.

필자의 開化期小說研究(1) 참조.

있기 때문이다. 즉 그 世界의 秩序가 어느 편에서 파악된 것이며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가에 따라 그 문제의 성격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에 대한 詳論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V. 남은 말

이상에서 필자는 <開化期의 小說> 설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간단한 私見을 피력해 보았다. 이것들은 이미 있어 온 연구에 잇닿아 있는 것도 있으며 위협해 보이는 假說을 세워 보기도 한 것이다. 가설은 증명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 필자는 이러한 가설들이 유효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해 볼 생각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 일방적인 연구——古典文學 쪽에서의 접근이나, 현대문학 쪽에서의 연구가 격변기 開化期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는 너무 單線的이었고, 그 결과 문학사의 단절을 초래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이의 수정·보완을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開化期를 양식의 共存時期로 보고 일단 共時的 方法에 의한 이해를 선행시키고, 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완전한 점들을 通時的 方法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開化期가 평면화되지 않을 것이며, 어느 한 쪽으로 쏠려 생기는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문학사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